

한동대학교 제10대 대학평의위원회
2025년 제9차 회의
(제 12회 회의록)

| 구 분 | 평의원 |
|------|-----|
| 의원정수 | 11명 |
| 재적인원 | 11명 |
| 참석인원 | 8명 |

□ 회의 일시 : 2025. 12. 2.(화) 14:30

□ 회의 장소 : 현동홀 204호(비전회의실)

□ 성원

1. 참석자 (8명) : 윤상헌 의장, 김혜정 의원, 이권영 의원, 이한진 의원, 김명호 의원, 남궁윤 의원, 이혜림 의원, 김래언 의원
2. 불참자 (3명) : 조혜신 의원, 민준호 의원, 박영호 의원
3. 회의록 작성 : 석호민(전략기획팀)

□ 회의 안건

- 한동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2025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심의 및 의결, 자문 내용

○ 한동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1) 대학원 교학팀 조용채 팀장이 해당 안건의 배경 및 내용 설명

-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의 현 입학정원은 25명이나 KOICA 전자정부 역량강화 석사 학위연수사업 선정에 따라 테크노융합학과에서 기존 15명 선발에서 20명을 선발함.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학과 선발 가능인원이 감소되어 입학정원 5명을 증원
- 국제법률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학사 구조는 미국변호사협회의 기준 및 규정 (American Bar Association(ABA) Standards and Rules for Approval of Law Schools)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입학 후 5년 내 졸업해야 하는 재학연한을 개원 당시부터 유지해 왔으며, 수업연한이 3년인 국제법무학과 기준 최대 일반휴학 가능 기간은 2년이었음. 그러나, 최근 ABA 규정의 재학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교 대학원 학칙을 이에 상응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글로벌대학30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석박사급 AI 융합 인재 양성 및 AI 융합 분야의 연구, 산학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와 휴먼테크융합학과를 통합하고, AI융합 특화전공을 신설하여 '휴먼&테크 AI융합학과'로 개편함

- 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로 명예교수를 위촉하여 학원생 연구 지도에 명예교수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활용하고자 함

2) 대학평의원 발언

[휴먼&테크 AI융합학과 개편 논의]

- 현재 개편안은 'AI융합'이라는 명칭에 비해 실제 내용이 부족하고 기존 휴먼테크 잔여 전공의 재조합으로 보이는 등 장기적 AI 전략이나 기업혁신파크 등 미래 산업과 연계된 대학원 체계로서의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우리 대학이 '융합·통합'을 관성적으로 사용하며 근본적 재정비 없이 형식적 구조 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융합학과는 실체와 성과가 분명하므로 유지가 타당하나, 휴먼테크융합학과는 과거 사업 기반의 잔여 전공으로 유지 필요성이 낮아 자연스럽게 일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AI융합대학원은 ICT창업학부와 AI융합교육원을 통합한 AI융합학부를 기반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일관적이며, 해당 조직은 교육부 요건을 충족할 충분한 전임·연구·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대학원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합함.

⇒ 휴먼&테크 AI융합학과 개편에 관한 내용은 재검토 필요

[명예교수의 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위촉 관련 논의]

- 대학원생 지도는 전임교원의 핵심 역할인데, 명예교수(정년퇴임자)에게 공동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및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됨
- 일부 대학(영남대·경희대)에 사례는 있지만 명예교수를 대학원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 명예교수에게 역할을 주는 것은 현직 교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보일 우려가 있으며, 퇴직 교수에게 '지도권'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님.

⇒ 명예교수의 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내용은 재검토 필요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입학정원 증원(25명 → 30명)]

-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전원 동의

[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개정]

-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전원 동의

○ 2025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1) 예산조정팀 이재열 담당자가 해당 내용 설명

- 예산 편성 개요: 2025 본예산 1,400억·1차 추경 1,206억으로 전체 예산을 현실화

중심으로 조정함.

- 등록금 수입 감소: 대학원·특수대학원 정원 미충원으로 등록금 약 10억 원 감소함.
- 전입·기부 수입 감소: 실내체육관 착공 지연 및 글로벌 사업비 축소로 전입·기부 수입 약 258억 원 감액함.
- 교육부대·교육 외 수입 조정: 영어캠프 등 국고사업 축소와 이자수입 현실화로 관련 수입이 감소함.
- 기금 인출 증가: 학생지원·연구비 일부를 기금에서 충당하며 약 3억 원 증가함.
- 보수 예산 증액: 급여 인상·채용 확정 등에 따라 인건비 약 2.3억 원이 증가함.
- 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 감소: 글로벌 사업비 축소에 따른 연동 조정으로 운영비·연구비 약 17억 원 감소함.
- 시설투자 예산 조정: 체육관 착공 연기 등으로 고정자산 예산을 실제 상황에 맞게 감액함.
- 이월금 증가 배경: 글로벌 미집행분·제네시스 자금 등 요인으로 전기이월금이 약 68억 증가함.

2) 대학평의원 발언

- 올해 우리 대학의 재정 악화에 대한 설명 요청
→ 올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제네시스랩, 개교 30주년 행사, 교수숙소 리모델링 등 대규모 지출이었으며, 특히 제네시스랩은 공사비 외 인테리어·집기비용이 추가되어 교비 부담이 늘어났음
- “예산을 아껴 쓰라”는 지침이 필수 업무 물품까지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필요한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필수 교육·연구·업무 예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메시지와 기준 제시가 필요
-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연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지출까지 막는 식의 해석은 문제
- 제네시스랩의 활용·수요·수익 구조가 불분명하고 실제 운영 실태를 구성원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창업·기업육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 | | | | | | | | | | |
|-----|-----|-----|-----|-----|-----|-----|-------------|-----|-------------|-----|-----|
| 의장 | 윤상헌 | 부의장 | 김혜정 | 평의원 | 이권영 | 평의원 | 이한진 | 평의원 | 조혜신 <불참> | 평의원 | 김명호 |
| 평의원 | 남궁윤 | 평의원 | 이혜림 | 평의원 | 김래연 | 평의원 | 민준호 <불참> | 평의원 | 박영호 <불참> | | |